

용담 『미르마루』



비룡못어울림마당, 마을스토어 준공식 개최(2025.10.24)

목 차 Contents

2면 인사글	용담1동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양석훈 용담1동장 강재선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의원 김항국	6면 기자단 글	부러리 문화마을 이야기 - QR로 떠나는 마을여행 - 부러리 달토끼밴드 창립
3면 인터뷰	우리동네 명사 대담 - 문군오 용담1동 무형문화재 부위원장	7면 기자단 글	조합 운영사업 소개
4면 인터뷰	백년가게 '순수한 둠비'	9면 기자단 글	도시재생 거점시설 준공식 행사 용담 미르마루 편집 위원회 소개
5면 기자단 글	용 이야기	10면 후원광고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조합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이 조합 창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025년은 덕훈카페와 부러리별식 등 주요 거점시설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을 더욱 다지며, 내년에 준공되는 '부러리 쉼팡(죽육카페)', 마을빨래방 등
신규 거점시설 역시 성실하게 준비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조합의 모든 사업은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와 신뢰가 있을 때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지역경제의 건실한 주체이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발행되는 마을신문 『용담미르마루』가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신문 제작에 힘써주신 마을기자단과
조합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용담1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양 석 훈**



**작년 용담 『미르마루』의 성공적인 창간에 이어
두 번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제주시, 용담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 비룡못어울림마당 마을스토어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거점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주민 주도하에 향후 신축되는 거점시설 운영관리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용담1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회복의 주체가 되길
바라오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담1동장 **강 재 선**

**존경하는 용담1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담1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소식지
『용담미르마루』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용담미르마루』는 단순한 소식지가 아니라, 마을의 거울이자 나침반입니다.

생활환경 관리, 안전과 돌봄, 골목 경제와 청년, 어르신의 일, 문화와 생태를 잇는
작은 실천들이 지면 위에서 서로 연결될 때, 우리 마을의 힘은 더 단단해 집니다.

『용담미르마루』가 그와 같은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공공적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주민과 현장에서 듣고, 배우고, 연결하는 동네의 '기록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원 **김 황 국**



우리동네 명사 대담



양석훈 용담1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왼쪽) / 문군오 용담1동 무형문화재 부위원장 (오른쪽)

우리동네 명사, 문군오 용담1동 무형문화재 부위원장

용담미르마루 2호에서는 지역의 주요 인물을 소개하는 '우리동네 명사 대담' 코너를 이어간다.

이번 호에서는 용담1동에서 오랜 세월 지역과 함께 살아온 문군오 무형문화재 부위원장을 만나 그의 삶과 지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문군오 선생님께서는 용담1동에 언제부터 거주해 오셨으며,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들려주십시오.

저는 1941년 한경면 저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4·3사건이 발생한 뒤 이듬해인 1949년,
아홉 살 되던 해에 어머니와 단둘이 용담1동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서문로는 자갈길이었고 생활환경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 해 서문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세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지요.
이후 이곳저곳 여섯 번이나 이사를 다니며 고된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서문로 근방에서
노점상과 구멍가게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1960년 1월 1일, 서문다리 인근에서 운영되던 세탁소를
인수하게 되었고, 이를 평생의 직업으로 삼아 '영화사 세탁소'를
35년간 운영했습니다.
그곳에서 4남매가 태어났고,
저와 가족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다녔고 배움은 부족했지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아이들을 뒷바라지한 것이 제 자랑입니다.
4남매 모두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육지에서 잘 생활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세탁소는 1995년 다른 분이 운영하게 되었고,
2005년에 폐업하였습니다.

Q.
용담1동, 특히 서문로 일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주신다면요?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제가 처음 시내로 왔을 때 서문로는
포장도 되지 않은 자갈길이었고, 도로도 지금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이후 도로가 확장되고 포장되면서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부러리 일대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터미널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들이 서문로에 모여 매표와 출발을 했습니다.
세탁소를 하면서 애월과 한림 등 서쪽 지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어 자연스럽게 친분도 쌓였지요.
반세기 넘게 살아보니 이 동네는 살기 참 좋은 곳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고 시장도 가까워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Q.
마지막으로 마을조합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마을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라는 게 쉽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하는 분들이 고생하며 노력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조합이 성공해야 서문시장과 주변 상가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지역 상권의 흥망성쇠를 지켜봐 왔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권 형성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고민하고 협력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담1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서문로 일대가 다시 활기를 찾기를 기대합니다.

<이정우 기자>

순수한 둬비

전래 제주 손맛 그대로

“백록담에는 하얀 사슴인 백록이 살았고, 용담에는 푸른 용이 살았는데, 하얀 사슴부터 용한테 시비를 걸어와서, 백록담 물이 제일 깨끗하고 호수속에 구름까지 담기는 날이면 혼자 보기 아깝다며 용을 초대하기도 했지만, 절벽같은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친 용담에는 바닷물까지 밀려 들어와서, 힘이 좋다고 용이 근육을 자랑하며 거절하는 정도였다.”



'순수한 둬비' 창업주 고화자 (왼쪽) / '순수한 둬비' 대표 김수열 (오른쪽)

백년가게 '순수한 둬비'

제주시 한복판에 자리한 백년가게 '순수한 둬비'는 제주의 맑은 물에서 비롯된 두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예로부터 두부와 콩나물은 물맛이 생명이라 했듯, 힘 좋은 용담의 물은 섬 전역에 소문이 자자했다.

잔치집과 상가집은 물론 서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널리 쓰이며 생활 속 식재료로 자리 잡아왔다.

'순수한 둬비'의 창업주 고화자(84) 할머니는 젊은 시절 새벽마다 두부를 만들기 위해 분투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던 미안함이 가장 가슴에 남지만, 스스로 성실하게 자라 제 몫을 해내는 자녀들을 보며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가장 든든한 사람은 며느리”라며 웃음을 보였다.

관광객들을 위해 며느리가 정성껏 차리는 음식은 제주의 전통 제사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고사리, 전복, 옥돔 요리, 흑돼지 산적, 표고와 새우전까지 한 상 가득 차려내면 손님들은 연신 감탄을 쏟는다.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눈빛을 알아채고 미소로 답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가 대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교차한다는 고 할머니.

그녀가 젊은 시절 일궈놓은 삶의 터전 위에서 지금의 '순수한 둬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두부는 제주산 1등급 콩을 깨끗한 물에 불리고, 맷돌에 갈아 여과한 뒤 콩물을 가열해 천일염으로 응고시키며 만들어진다.

부드러운 순두부를 면포를 간 틀에 붓고 압축기로 눌러 굳히면 다음 날 새벽 고슬고슬한 마른두부가 완성된다.

썰어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어 축하나 조문 자리의 식사로도 사랑받는다.

한편 '순수한 둬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전국대회 '2025 코리아 마스터셰프 챔피언십' 외식 창작요리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김준우 점장과 김수열 대표는 “제주의 맛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전국 무대에서 '외식 창작요리 최우수상' 수상 ('2025 코리아 마스터셰프 챔피언십' 외식창작요리 부분 금메달을 수상한 '순수한 둬비' 김준우 점장 (왼쪽) / 김수열 대표 (오른쪽))

<강명복 기자>

용 이야기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용연(龍淵)이 중국의 용문(龍門) 전설과 깊은 문화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발원한 한천(漢川) 하류에 자리한 용연은, 전설에 따르면 용이 백록담으로 오르는 통로였다고 전해진다.

이는 중국 황하 상류 이수(伊水)와 낙수(洛水)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용문(龍門)의 전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잉어가 용이 되는 등용문, 제주 용연과의 연결점 중국 하남성 낙양(洛陽) 남쪽 13km 지점에는 세계문화유산 용문석굴(龍門石窟)이 있다.

이곳은 '용문삼급(龍門三級)'이라 불리는 급류가 있어, 잉어가 이 폭포를 거슬러 오르면 용이 된다는 '등용문(登龍門)' 전설의 발상지다.

제주 용연 역시 '비의 신 용이 한라산 백록담으로 올라가는 통로'로 여겨져 왔다. 가뭄이 들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 비를 기원했던 것도 용이 하늘로 오르는 신성한 장소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용연과 중국 용문 모두 물의 흐름을 거슬러 용이 승천하는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용 신앙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영주십경 용연야범, 마애명에 새겨진 풍류 용연은 영주십경(또는 영주십이경) 중 하나인 '용연야범(龍淵夜泛)'으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제주목사들은 방선문에서의 봄꽃놀이와 용연에서의 밤 뱃놀이를 최고의 풍류로 여겼다.

중국 하남성 용문석굴이 불교 예술의 집대성으로 수많은 불상과 글귀가 새겨진 것처럼, 용연에도 제주에 부임한 목사들이 바위벽에 한시와 이름을 새긴 '마애명(磨崖銘)'이 남아있다.

자연의 아름다움, 타향살이의 외로움, 풍류의 정취를 담은 이 마애명은 제주 선비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신성한 물길, 한천과 이수의 공통점 한천은 '큰 하천'이라는 뜻으로, 남쪽의 효돈천과 함께 제주에서 신성시되어 온 하천이다.

중국 용문을 흐르는 이수 역시 낙수와 함께 황하 문명의 발상지로 신성하게 여겨져 왔다.

두 물길 모두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인간과 신,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인식됐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물 신앙의 원형을 공유하고 있다.

제주 용연은 중국 용문의 등용문 전설과 맥을 같이하는 동아시아 용 신앙의 살아있는 증거다.

한천을 따라 백록담으로 오르는 용의 전설은 수천 년 동아시아 문명이 공유해온 신성한 물길의 기억이자 문화적 정체성이다.

<김소정 기자>



중국 낙양 용문석굴 이수



용담동 용연

부러리 문화마을 이야기

QR로 떠나는 마을여행

용담1동 부러리마을은 관덕정과 서문시장, 제주항교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지점에 놓여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용연계곡과 동한두기까지 이어지는 자연경관은 물론, 오랜 시간 주민들이 지켜온 따뜻한 마을의 정서가 깃든 곳이다.

마을 투어는 이런 마을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잇는 여행이다.

마을 곳곳에 남아 있는 오래된 이야기는 서문로 기반의 상권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지역의 흐름을 보여준다.



즐거움 마을 투어 참가자들



마을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청년들

덕훈카페, 부러리별식, 부러리심팡, 양서대학, 태광식당, 제주수물, 제주커피방아, 삼복당 빵집으로 이어지는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가게의 이야기와 함께 마을을 풀어냈다.

타 지역에서 온 청년들, 용담1동에서 청년기를 보냈던 분들, 현재 용담동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 한림에서 오신 유쾌하셨던 분들이 참가했다.

부러리 마을을 비롯해 원도심의 마을 이야기가 알려질 수 있도록 마을 투어가 지속되었으면 한다.



공연 중인 달토끼밴드

부러리 달토끼 밴드 창립

'부러리' 마을의 이름에서 영감을 받은 시니어 중심의 '달토끼 밴드(Moon Rabbit Band)'가 공식 창단되면서 지역 문화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용담1동에 자리한 '부러리 마을'은 그 독특한 이름 때문에 관광객들 사이에서 '부러움을 사는 마을'이 아니냐는 유쾌한 질문을 받기도 한다.

'부러리'라는 이름의 어원은 제주도 방언으로, '달이 뜨는 모습이 잘 보이는 높은 지대'라는 뜻을 품고 있다. 이 어원을 따라 '달토끼 밴드'라는 이름을 지었다.

'달토끼 밴드'는 특히 6070세대 시니어 어르신들의 '휴먼 악기 연주 (the performance of human instruments)'를 주축으로 하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진정한 화합의 무대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이다.

구성 인원 제한이 없으며, '언제나 어디서든 스스로 춤이 가능한 자기표현 예술동작'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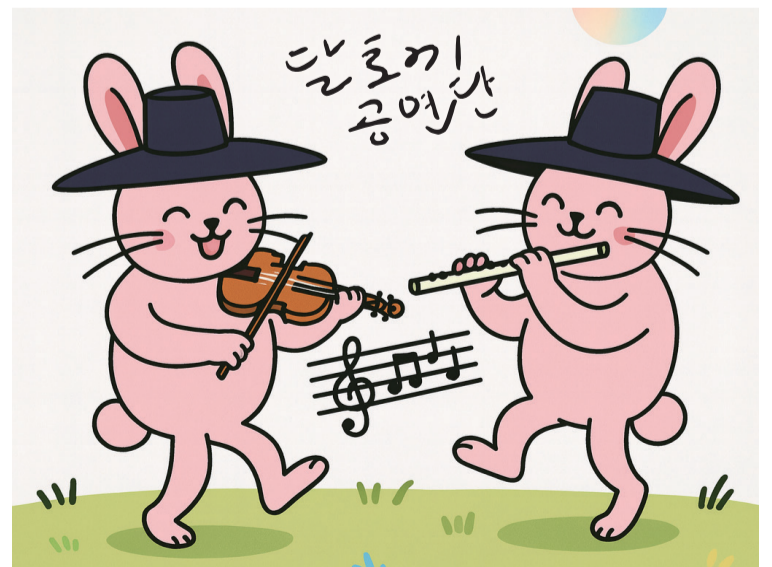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흥겨운 가락에 맞춰 모두가 참여하며, 불규칙적인 표현 속에서 스스로 춤을 추는 예술 동작을 통해 '현재, 오늘, 지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 예술 공동체이다.

창단 공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쾌한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달토끼 노래 가사>

부러리 마을 달토끼, 부러리 마을 달토끼, 달토끼 노래해, 달토끼 연주해
도레미 파솔 라시도, 도레미 파솔 라시도

<김영숙 기자>



조합 운영사업 소개

비룡못어울림마당

비룡못어울림마당은 2025년 5월 준공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운영되던 '덕훈이용원' 건물을 개보수하여, 옛 비룡못터의 형태를 재현해 주민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1층에는 커피·음료 무인자판기, 라면 및 멀티자판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2층은 담소를 나누거나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덕훈카페 / 서문로 63-2 1층

영업시간 09:00~21:00 / 064-725-7008



덕훈카페 외관



덕훈카페 내부



비룡못터 자연형 수로



부러리별식 외관



지역 특화 도시락(예약 주문 가능)



부러리별식 내부

마을스토어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스토어'는 마을의 거점 공간이며 서문공설시장 맞은편에 있다.

1층 '부러리별식'은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마을 반찬 가게로, 제주 제철 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반찬과 지역 특화 도시락을 개발·판매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의 상생 공간이다.

2층에는 마을조합이 여러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다.

부러리별식 / 서문로 65 1층

영업시간 10:00~19:00 / 토,일 정기휴무 / 064-752-1002

부러리별식 인스타 : bureori_moms

부러리별식 밴드 : 반찬가게_부러리 별식

부러리 쉼팡 (카페+족욕)

용담동은 예로부터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마을 이름 용담(龍潭) 역시 '용이 사는 못'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물자원을 활용해 옛 금화목욕탕 부지에 현대적인 감각의 족욕 카페 '부러리 쉼팡'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늦어도 2026년 3월경 준공될 예정이며, 6월경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러리쉼팡 외관



마을 해설 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주간)



마을 해설 프로그램 운영(제주중학교)

마을해설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형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해설사들은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용담1동 마을해설사 마을투어 / 문의전화 064-725-7008

<양석훈 기자>

도시재생 거점시설 준공식 행사

지난 10월 24일(금), 용담1동 비룡못어울림마당에서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 지 약 4년여 만에 거점시설이 완공되어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조합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 - 조합 번영 기원 고사 및 현판식

첫 순서로 용담1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주관의 준공 고사가 진행되었다. 조합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을 올린 뒤, 조합 건물 현판식이 이어지며 거점시설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조합건물 현판식



조합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기원 고사



준공식 행사

2부 - 준공식 및 축사

이어서 열린 제2부 준공식에는 유관기관 및 관내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석형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의 사업 결과보고가 진행되었다.

이어 양석훈 이사장의 인사말과 함께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 강재선 용담1동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양석훈 이사장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마침내 준공되어 매우 기쁘다"며 "거점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해 용담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한 테이프커팅이 진행돼 준공의 의미를 더했다.

3부 - 비룡못 어울림마당 축제

준공식 이후에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제3회 비룡못 어울림마당 축제'가 열렸다.

색소폰 공연, 라인댄스 동아리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식사를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고은숙 기자>



색소폰 연주 공연



댄스 동아리 공연



라인댄스 동아리 공연



용담 미르마루 편집 위원회 2025 발행 회의

용담 미르마루 편집 위원회 소개

용담1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을 관리·운영하며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다.

이 조합에서 발행하는 마을신문 용담미르마루는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소통 창구로 자리하며, 편집위원회는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콘텐츠를 기획·편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용담1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주소 : 제주시 서문로 65, 2층
전화번호 : 064-725-7008

편집위원 : 용담1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양석훈, 강명복, 고은숙, 김소정, 김영숙, 김해리, 이정우

발행 : 용담1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 제 2호 발간 2025년 12월 | 메일 : youngdamcoop@naver.com

제주콘텐츠진흥원 | 이 콘텐츠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콘텐츠진흥원,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MG 새마을금고

이사장 : 김상주
 부이사장 : 김동일
 상근이사 :
 문대중, 양명일, 이창수, 강두욱, 진정율, 백경재, 박병호
 감사 : 고희경, 고영호
 실무책임자 : 고동수 전무
 지점장 : 김영아 상무

본점 주소 : 제주시 용담로128(용담일동) | TEL : 757 - 7410~3
 지점 주소 : 제주시 용문로155(용담이동) | TEL : 711 - 7411



MG 용담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상주

아름다운 믿음(信) 조합원과 함께(協)
제주Y신협

대출 도와드리겠습니다.
Y신협과 상담하십시오
 신용, 담보, 햇살론, 사잇물, 중소기업자금, 농어촌진흥기금



제주 Y신협 이사장 여혜숙

이사장 : 여혜숙
 이사 : 고정연, 고영남, 이창석, 김의선, 강순심
 전문이사 : 양기준 | 감사 : 김두원, 고호성, 홍성숙
 실무책임자 : 부경남 | 신제주 지점장 : 김진희
 도리 지점장 : 이유은

본점 : 제주시 서사로 12-1 (용담일동) | T. 755 - 1501
 신제주지점 : 제주시 성신로 1길 18, 101호 (연동) | T. 744 - 1502
 도리지점 : 제주시 도공로 12-1, 101호 (도두일동) | T. 743 - 1501

신협공제 / 신협체크카드 취급
 신용카드(신한카드제휴) 발급
 VAN(카드체크기)사업 취급



사단법인 **제주와 미래**
 JEJU FUTURE RESEARCH INSTITUTE

제주미래연구원 이사장
 용담1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김기성



순수한 둥비
 전래 제주 손맛 그대로

TEL. 064.747.1361
 오전 8시 ~ 오후 9시
 주소. 제주도 제주시 서문로 37-11(용담일동)

N 순수한 둥비



한우특수부위 일체 제주도 흑돼지 판매

TEL. 064.753.5333
오전 7시 ~ 오후 9시
주소. 제주도 제주시 서문로6길 3(용담일동)

N 용담정육마트



합리적인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 최고의 품질 / 푸짐한 양 신선한 육질의 고기

TEL. 064.753.5333
MOBILE. 010.4690.2339 / 010.5005.2339
주소. 제주도 제주시 용담로 18길 3, 1층(용담일동)

N 대정골갈비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기는 건강한 오리고기 한 상!

TEL. 064.726.5152
MOBILE. 010.4482.5152 / 010.8300.9252
주소. 제주도 제주시 남성로 34 (용담일동)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2시 - 5시 브레이크타임)

N 오리한마당



오리 한마당

제주 보고정 TOUR

대표 양호진 梁豪真
TEL. 064.702.1718 / FAX. 064.756.5142
MOBILE. 010.4690.7221
E-MAIL. w203030@naver.com
주소. 제주도 제주시 서광로 149, 2F

N 제주보고정투어





(주)모든ENG

건축물 철거 · 석면해체 전문업체

대표이사 김형남

TEL. 064.749.1530 / FAX. 064.749.1531

MOBILE. 010.4001.1530

E-MAIL. momo1331@hanmail.net

주소. 제주도 제주시 우령안1길 22 (외도일동)

DS 대성주방

후드 / 트렌치 / 그리스트랩 / 제작 / 시공

대표
현 지 훈
010-5691-4307

TEL. 064.749.1530
FAX. 064.749.1531
E-MAIL. guswlgns12@naver.com

HWASOO



대표
좌 정 현
010.2247.1030

주소. 제주시 서광로 18길 10, 1층
메일 jwqjh2002@hanmail.net
홈페이지 www.hwasoo.com

협력업체 : 누리건설 · 태승산업개발 · 도경건설[여성기업] · 서호건설 (벽화 · 조형물 · 미끄럼방지) · (주)국제에스티(웬스)
태양광 경관조명 · 표지병 / 각종전문건설업 / 벽화 · 조형물 · 미끄럼방지 포장 / 안전웬스 등



건강을 담은 반찬·도시락
T. 064-752-1002

용담 마을스토어

TEL. 064-752-1002
오전 10시 - 오후 7시 / 토,일 정기휴무
주소. 제주도 제주시 서문로 65 1층
부러리별식 인스타 : bureori_moms
부러리별식 밴드 : 반찬가게_부러리 별식

N 부러리별식

